



“도민 생명과 재산, 우리가 지킨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식에 참석해 신임 소방공무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48명의 신임 소방관들은 선서에서 “도민 기대와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정과 훈신을 다해 가장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했다. 임용된 소방공무원들은 지난해 채용시험에 합격해 소방학교에서 24주간 교육 과정을 수료했으며 각자 배치된 소방서에서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2주간 현지 적응 훈련을 거친 뒤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사진 권오현

충남 발전 100년 밑그림 그렸다

220만 도민과 함께한 힘쎈충남 1년

역동적이고 파워풀하게 체질 개선과 창출 목표로 도정방향 재설정

충남도는 민선8기 출범 1년 동안 강한 추진력으로 국비 9조원 시대 개막, 투자유치,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 등 성과를 냈다. 아울러 충남 산불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충남형 M버스 등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베이밸리 메가시티 추진 등 도정 기반 강화에 주력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6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8기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의 도정을 돌아보며 “1년 동안 도정을 역동적이고 파워풀하게 바꾸면서 성과물을 내기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정책들도 세팅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년은 국가에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면서 대한민국을 선도한다는 의지로 정책들을 추진하고, 미래 50년, 100년을 내다보며 기틀을 세웠다.

과감한 정부예산 확보 목표를 설정해 정부의

긴축재정 속에서도 역대 최고인 국비 9조원 시대를 개막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을 제안하는 등 충남 현안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4조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세계 최초 8.6세대 아이티(IT)용 오엘이디(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전용 라인이 삼성디스플레이 충남 아산캠퍼스에 들어선다. 삼성은 향후 52조 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국내외 투자유치 세일즈를 통해 64개사 10조 3314억 원의 투자실적을 달성했고, 국가산업단지 신규 후보지에 2개소가 선정됐다.

또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개원 단축,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등 의 성과를 냈다.

김 지사는 충남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가져오겠다고 한 약속에 대해 지키고 있다면서 앞으로 새로운 경제산업지도를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에 힘쓰겠다고 했다.

도는 탄소중립 선도를 위해 지난해 10월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6월 전국 지자체 첫

1회용품 퇴출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지역별 특색을 살린 지역주도 발전을 강화하며, 베이밸리 메가시티, 내포신도시 완성, 국제 해양레저 관광벨트, 문화관광 명품도시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김 지사의 1호 결재 사항인 베이밸리(아산만 일대 광역 생활·경제권) 메가시티 건설사업도 속도를 낸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사업은 충남 북부권과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만드는 대규모 계획이다.

도는 2022년 9월 경기도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3월 충남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연구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한 농업·농촌의 구조·시스템 개선에 집중 투자한다.

김 지사는 “충남의 미래는 밝다.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산업지도를 그려 나갈 것”이라고 했다.

〈관련 2-5면〉

/김정원 jwkim87@korea.kr

민선8기 중점추진 과제

농어업의 스마트 미래성장 산업화

- 청년 농업인 유인 및 ICT 융복합 농어업 기반 구축
- 농어업·농어촌 발전역량 강화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 지역 특색·특장을 살린 균형발전
- 충청권 초광역 협력 강화
- 지역과 상생하는 인재 양성

신 경제산업지도 구축

- 국가 탄소중립 경제 선도
- 미래 전략산업 육성
- 교통 인프라 확충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늘 곁에 있는 사회복지망
- 저출산 및 인구위기 대응
- 지역 의료 체계 강화

지면안내

충남도지사 기자회견
민선8기 1주년 발자취
'2023 대백제전' 개최
탄소중립 초성퀴즈
문화달력

2-3면
4면
7면
9면
12면



-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 우리 뜻이 통하는 충남



■ 충남 현안 들고 대통령 독대

김태Hum 지사는 지난 1년 동안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대기업 총수 등을 연이어 만나며 현안을 풀고, 발전 과제 해결 실마리를 찾아왔다.

지난해 10월 18일에는 충남도지사로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현안 과제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혁신도시 공공 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 부여 ▲디스플레이 산업 투자 확대 ▲수소산업 육성 등 7개 현안을 건의하고, 공감대를 확인했다.

지난 4월 4일은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서 열린 신규 투자 협약식에서 대통령에게 흥성, 당진, 보령, 금산 등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 하루 만에 화답을 받았다.

■ 정부예산 '9조 시대' 개막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1일 취임 전부터 당선인 신분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만나 정부예산을 요청하는 등 도지사로서의 활동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힘쎈충남은 출범 6개월 만에 정부 예산 9조 원 시대를 개막할 수 있었다.

최근 협약을 통해 신설 유치를 공식화 한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가칭)도 지난 4월 2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확답을 받았다.

이 센터에는 국방 인공지능(AI)·로봇·군용전지 등 5개 연구시설이 구축되며, 추후 방산 관련 기업 대거 유치가 기대되고 있다.

충남혁신도시 완성 발판이자 내포신도시의 또 다른 관문인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의 경우는 국고로 부담해야 하는 일반철도 시설 설치 비용을 지방비로 투입하는 대신, 3개 대안 사업 1210 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주한미군기지 인근 아산시 둔포면 8개 마을과 관련해서도 493억 원 규모의 대안 사업을 발굴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한 서산 공항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 특유의 뚝심으로 '속전속결'

도는 지난해 12월 민선8기 출범 5개월여 만에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성공했다.

대통령과 도지사 공약사항인 국립경찰병원 분원 아산 설립이 공모로 전환되자, 특유의 뚝심과 치밀한 대응을 통해 공모를 통과하며 220만 도민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했다.

토지 매매 기간만 3년 소요가 예상됐던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명지의료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개원 시기를 3년 앞당긴 2026년 3월 문을 열도록 했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이 문을 열면 충남 서부권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주민들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내포신도시 정주여건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외 64개사 10조 3314억 유치

지난 1년 동안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는 64개사 10조 3314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는 52개사 9조 7700억 원, 외투기업은 12개사 4억 1900만 달러다.

이 중 특히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는 민선8기 최대 규모인 4조 1000억 원을 유치했다.

삼성은 4년 간 세계 최초 8.6세대 아이티(IT) 용 오엘아이디(OLED) 전용 라인을 아산캠퍼스에 구축키로 했다.

도는 삼성이 앞서 밝힌 수도권 외 지역 투자 60조 1000억 원 가운데 52조 원도 도내에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천안 성환 종축장 국가산업단지 내 첨단산업 추진, 지역 인재 채용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도내 기업의 지난해 수출액은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착착'

지역 및 국가 경제의 대동맥과도 같은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도 속도를 냈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기획재정부 예타를 통과하고, 행복도시~고속철도(KTX) 공주역~탄



제39대 김태Hum 충청남도지사 취임식

제39대 충청남도지사 취임식 -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39대 충청남도지사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22.7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 - 김태Hum 충남도지사가 부여, 청양, 보령 등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2.8

220만 도민과 함께한 힘쎈충남 1년

민선8기 힘쎈충남은 강하고 역동적인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힘으로 발돋움했다.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를 다시 세운다는 일념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며, 충남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발판을 탄탄하게 다져왔다. 김태Hum 지사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다.

자문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지난해 3월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는 기후위기에 맞선 탄소 중립 실현을 넘어,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선포했다.

도는 청정 에너지를 중심으로 기업 생태계를 전환하고, 저탄소 산업 및 고용을 창출하며, 선순환 경제로 충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과 석탄산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 지원 등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고 있다.

천안과 흥성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새롭게 탄생한다.

국토교통부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따라 천안종축장(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땅은 미래 모빌리티 산단으로 털바꿈한다.

흥성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에서는 미래자동차와 2차전지, 인공지능, 수소 등을 중점 육성한다.

천안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은 특히 김 지사가 대통령과 기재부·국토부 장관을 수 차례 만나도 산림자원연구소와 종축장 부지 및 교환 계약 등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 농업·농촌 구조·시스템 개혁 추진

도는 농업인이 돈 버는 농업, 산업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 농업·농촌 시스템 개혁을 중점 추진해왔다.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12월 서산시, 현대건설 등과 청년 농업인 육성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청년 농업인 영농 현장 유입 및 정착,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서산 AB지구에 대규모 스마트팜 영농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3면에 계속 >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기반 마련 (아산만권을 K-실리콘밸리로 조성)

충남·경기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미군이전 평택지원 특별법」개정 및 국가에서 제안한 대안사업 발굴(493억 원 이상) 등

2track 추진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식 - 김태Hum 충남도지사가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식에서 '수소도시 조성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0



김태호 충남도지사가 6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8기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성과와 중점과제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도는 또 도내 시군에 청년 임대 스마트팜을 조성, '젊은 충남 농업' 기반을 넓히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기업 혁신 공모를 통해 부여에 스마트경영 실습농장 온실과 스마트농부 기술교육센터 등을 조성한다.

■ 드래프트제로 “공공기관 선점”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도 힘쎈충남이 힘을 쏟아온 분야 중 하나다.

도는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가시화 전망에 따라 중점 유치 대상 34개 기관을 공식화하고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다.

공공기관 드래프트제는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충남이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고,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받은 후 후속 절차가 없는 차별적인 상황에 따라 김 지사가 제시한 방안이다.

최근에는 도내 ‘일’을 하면서 ‘몸’은 타 지역에 뒤 도민 불편 등을 야기하고 있는 공공기관 31곳을 추려 분리·독립 촉구 서한문을 보내는 등 유치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가동 중이며, 흥에 공원 명품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민선8기 힘쎈충남은 이와 함께 생산적 복지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왔다.

‘힘쎈충남 보훈카드’를 출시해 보훈 대상자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였다.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을 6년 만에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충남 빌랄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문을 열었다.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18홀 규모 파크골프장 30개를 도내 각 시군에 신·증설 중이다.

청양 옛 구봉산에는 대한파크골프협회를 유치하고, 108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신축·조성한다.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해서는 대학생활안정자금

을 신설하고 자립정착금을 확대했으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는 표준보육비용 전액을 지원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특별 지원하고, 도내 대학생들을 위해선 충남형 1000원의 아침밥을 도입했다.

■ 성과 중심으로 조직 체질 개선

힘쎈충남은 이밖에 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 효율화를 통해 유사·중복기능을 뺐다.

남부지역 민원행정 서비스 신속 대응과 균형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남부출장소를 열었다.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역량 강화 예산으로 돌려 농어민수당 확대 지급에 따른 중복 지원 문제를 풀었다.

학교급식 분담 비율 조정으로 무상급식 부담 비 불균형을 바로잡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

지역 보훈단체장과 건설업체, 청년, 기업인, 농업인 등 초청 도정 간담회를 통해 도정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제를 구체화했으며, 시군 방문을 통해선 도민과의 직접 소통의 장을 떴다.

■ 본격적인 성과 창출 ‘총력’

앞으로는 그동안 만들어온 기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한다.

지방소멸 위기와 국가 및 도내 지역 간 불균형, 저출산·고령화 등 녹록치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며, 더 큰 미래 발전 발판을 쌓는다.

농업·농촌 구조와 시스템 개선을 위해선 고령 은퇴농연금제, 스마트팜 660만㎡ 규모 스마트팜 조성, 청년농업인 3000명 유입, 농축산업 및 주거 단지화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서산AB지구 청년 농업인 영농단지와 예산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내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 스마트 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 농촌형 리브투게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스마트팜 사관학교에서는 청년농 9000명

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통해 경제산업 지도도 새롭게 그린다.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10조 원대 기금을 조성하고, 대체 산업을 육성하며,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통해 전기요금 차등제 모델을 마련한다.

보령·당진 수소도시 조성과 보령 블루수소 생 산플랜트, 수소연료발전소,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탄소경제 산업을 활성화한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부품 기술 상용화 콤플렉스, 디스플레이 첨단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한다.

■ 시군 특장 살린 지역주도 발전 추진

충남 북부권과 남부권 불균형 완화를 위해선 지역 특장을 살려주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한다.

주요 추진 정책으로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내포혁신도시 완성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문화관광 명품도시 ▲국방특화 클러스터 구축 등이 있다.

충청권 협력 강화를 통해 메가시티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행정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력과 자생력을 확보한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현금성 지원을 지양하고 생산적 복지를 확대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는 교통 편의성 향상과 물류 비용 절감, 기업 투자유치 등 지역 발전 필수 요건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서산공항은 기존 계획대로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서해선 고속철도(KTX) 직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천안·아산 연장, 호남선 고속화, 충청권 광역철도,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내포~천안 고속도로, 제2서해대교 등을 적기 건설을 위해 예타 등에 적극 대응한다.

/정책기획관 041-635-3111

역동적이고 파워풀한 충남 “대한민국을 선도합니다”

민선8기 출범 1주년 회견

김태호 충남도지사는 6월 22일 “역동적이고 파워풀한 미래를 위해 변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1년 동안 도정의 체질을 바꾸고, 성과물을 내기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다.

민선8기 성과와 관련해 “도지사 결재 1호인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11월 이면 경기도와 우리 충남이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무엇을 담을 것인지 등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긴축재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었다. 내년 예산 목표는 10조”라면서 여러 변화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자평하기도 했다.

이어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강력 요구해왔다. 다만 폐지지역의 지역경제위축, 일자리 전환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가 가야 될 방향과 목표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짚고 간다 생각한다”라며 “충남도지사로서의 충남의 현안문제라든가 충남의 미래발전 문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필요 하면 저는 대통령을 만나 충남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답했다.

대백제전과 관련해 “정체성을 담고 볼거리도 풍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과학적이고 외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인근 현에서 들어오는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등 도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도민들이 도지사에게 준 책무는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출발할 때 도민들에게 약속을 드렸다. 속도감 차이는 있지만 자신있다. 충남도의 미래는 밝다”고 했다.

/김정원 jwkim87@korea.kr



베이밸리 공동추진 김동연 경기지사와 '맞손' - 김태호 충남도지사가 '베이밸리 메가시티' 성공 추진을 위해 아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 사업의 성공 추진을 다짐하고 있다. 2023.3



홍성 산불 현장의 김 지사 - 김태호 충남도지사가 홍성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자 현장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신속한 진화와 이재민 대책 마련 등을 지시하고 있다. 2023.4



삼성디스플레이 투자 협약식에서 만난 김 지사와 윤석열 대통령 - 김태호 충남도지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아산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협약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4

도민과 함께한 힘쎈충남 1년간의 발자취

2022

(2022년 6월~12월)

언더2연합 뉴욕 총회참석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지역
의장으로서 글로벌 리더들과
탄소중립 연대 강화

민선8기 첫 시군방문
총 387건 건의사항 처리
※ 원로(324건), 경기경토(50건), 수용관련(13건)

**베이밸리 메가시티 충남·경기
상생협력 업무협약**
아산만권을
K-실리콘밸리로
* 충남·경기 공동 종합발전전략 수립,
경제·물류·SOC·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 협력

**진중호우 피해지역
(부여, 청양, 보령 청라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복구비(국비) 1,538억 원
특교세 180억 원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선포
석탄화력발전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임에도
오히려 국가탄소중립 선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
관람객 목표(131만 명) 대비 130%,
수의사업 수입 목표(33억 원)
대비 121% 성과

2023

(2023년 1월~6월)

**희망 2023
나눔캠페인 1인당 모금액
5년 연속 전국 1위**
207억원 달성을 목표(171억원) 대비
121.5% 달성

**2026년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조기 개원을 위한
명지의료재단 업무협약**
당초 계획보다 3년 이상
앞당겨 조기 개원

**한파대비 재해구호기금
76억 원 긴급투입**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기구당 10만 원, 경로당 20만 원 지원

**충남
남부출장소 개소**
남부지역(논산·계룡·금산) 민원행정서비스
신속대응 및 균형발전사업 추진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개통**
주요 학교, 편의시설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운행(2대, 1일 22회)

**충남 산불피해지역
(홍성·당진·보령·금산·부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단 하루만에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 산불피해 복구비 350억 원 확정 및
산불대책 특교세 73억 원 확보, 산불 성금 65억 원 모금

대한파크골프협회 청양 이전 협약
대한파크골프협회 및 교육센터 유치로
충남을 파크골프 메카로 조성

**삼성디스플레이와
4.1조 원대 투자 협약**
VIP초청 세계 최초 8.6세대 IT용 OLED
전용라인 투자 및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구축
협약(향후 충남에 52조원 추가 투자)

취임 전 중앙부처 장관 방문

당선인 신분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방문, 충남 현안 지원 요청

**보령해양마드박람회
성공 개최**

관람객 목표(120만 명) 대비 113%,
수의사업 수입 목표(57.5억 원)
대비 106% 성과

**계절근로자 유치
등을 위한
도-라오스 업무협약**

전국 최초 도 주관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11개 시군 1,050명)

**현대건설 비축농지
100만 평 규모 확보**

도, 서산시, 현대건설과 협약을 통해
AB지구 농지 청년농에 임대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

6개 센터, 23개 진료과, 550병상
상급종합병원 유치(4,885억 원)

정부예산 9조 원 시대 개막

국가 긴축재정 속에서도
9조 589억 원 확보
(전년 대비 6,850억 원 증가)

스마트팜

드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성공**

총청권 4개 시도
공조를 통해 사상 첫
국제종합경기대회 공동 유치



**대통령과 독대,
충남 현안 논의**

7개 주요현안*
해결에 대한 긍정적 공조 의지 확인
①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국가매입 또는
도내 국유지와 맞교환
②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우선搬迁권 부여
③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④ 충남지역 국립 의과대학 신설
⑤ 디스플레이사업 투자 확대
⑥ 충남지역 공약 속속 추진
⑦ 수소산업 육성

**민선8기
첫 외자유치 유럽순방**

영국·프랑스·룩셈부르크·독일 방문,
에드워드 등 5개사와 투자협약 체결
(2억 1500만 달러 규모)



충남형 M버스 개통

순천향대~평택지제역 노선 신설을 통해
수도권과의 교통망 구축

**전국 최초 휠체어 럭비팀 창단
(충남장애인체육회)**

**백종원 대표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협력**

충청남도-예산군-(주)더본코리아,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육성

일본 순방

대백제전·금산세계인삼축제 홍보 및
첨단 자동차부품기업 4000만 달 투자 유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기요금차등제 도입이 가능.
도민들이 전기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도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조건



**홍예공원 명품화 업무협약
(도-홍성-예산) 및
릴레이 헌수 기증식**

도민들과 함께 공원 조성

**독일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와
업무 협약**

전력·차량용 반도체 세계 1위 기업과
신재생에너지기술센터(TEC) 공공파운드리 구축 협력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

12만 평, 2,969억 원 규모
(AI, 로봇, 켐-비이오, 군용전자, 차세대 에너지 실험연구)
방산 관련 기업유치 단력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가차원의 특별한 지원 요구



지역 균형발전 '집중' 권역별 전략 추진

민선8기 중점추진 과제

청년농 육성 스마트팜 단지 조성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 구체화
지역주도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충남도는 강한 추진력으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미래먹거리 창출 등 획기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 농어업 시스템 개편,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앞장선다. 도가 추진하는 ▲농어업의 스마트 미래성장 산업화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신 경제산업 지도 구축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중점추진과제를 살펴본다.

도는 농어업의 스마트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 농어업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청년농업인 유입에 힘쓴다.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해 스마트팜 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팜 단지(200만평)를 조성한다. 아울러 농생명 그린바

이오 클러스터 연계 스마트팜 연구개발(R&D) 기반을 구축한다. 또 고령 농업인 대상 농지 임대 조건의 정년 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촌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형 리브투게더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을 위해선 균형발전과 충청권 초광역 협력을 강화한다. 지역 특장과 특색을 살린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에는 한국형 실리콘밸리 청사진을 제시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내포혁신도시 완성, 국방특화 클러스터,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문화명품 관광도시 등이 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공동 연구를 추진 중이며, 내포혁신도시는 드래프트제 적용 등 수도권 34개 중점 유치 기관 이전을 추진하면서 흥예공원 명품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국방특화 클러스터는 국방기관 유치, 국방산단 조성 등을 추진한다. 도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협약을 맺고 2030년까지 논산 일원에 (가칭)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건립키로 했으며, 육사 이전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준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적 개최 등 충청권 초광역 협력을 강화한다.

미래발전 기반 확립을 통해 새로운 경제산업지도를 구축한다.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와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등 국가 탄소중립을 선도하며 기후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한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부품기술 상용화 콤플렉스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기반 강화, 디스플레이 첨단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해양수산업 미래가치 창출 등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서산공항 건설, 서해선과 경부KTX 연결, 충청산업문화철도, 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한다.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한다. 대한파크골프협회 유치 연계 파크골프 교육센터 건립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대하고, 시군별 상이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평균 30만원으로 인상해 지역간 수당 격차를 해소한다.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한다.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 (가칭)국립치의학 연구원 설립, 지역의대 신설 유치 및 대학병원 설치 등 지역의료체계도 강화한다. 또한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문화 특화거리인 안서동 대학로 조성을 추진한다.

/김정원 jwkim87@korea.kr

권역별 5대 전략 주요과제

천안·아산(대한민국 디지털 수도)

- 천안종축장 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기반 구축

당진·서산·태안·보령·서천

(국제해양레저관광벨트)

-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 서해안 마리나 산업 육성
-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및 연륙교 건설

홍성·예산(내포혁신도시 완성)

- 수도권 공공기관 내포신도시 이전
- 홍예공원 명품화
- 국립대 의대 유치 및 종합병원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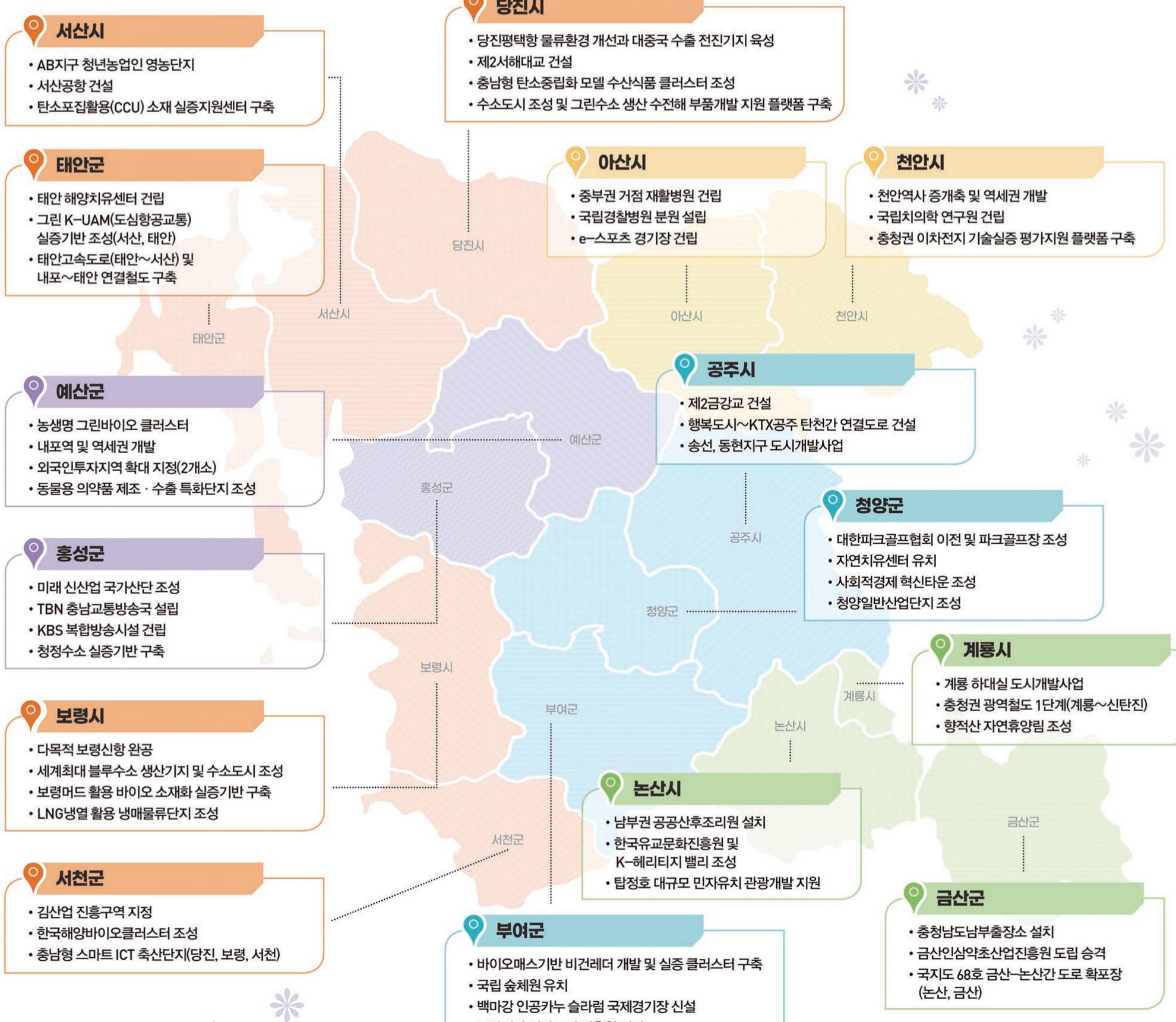
공주·부여·청양(문화명품관광도시)

- 백제문화 체험마을 조성
- 칠갑산 관광자원 개발 및 콘텐츠 개발

계룡·논산·금산(국방특화클러스터)

- 국방관련기관 이전 및 신설
- 국방산단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 육군사관학교 이전

시군별 주요 과제



국방미래센터 2030년 논산에 문연다

도-국방과학연구소-논산시 협약
 국방장관 설립 약속 후 두달 만
 내년부터 2030년까지 2969억 투입

충남도가 대한민국 미래 최첨단 국방력 강화를 견인하게 될 정부 연구기관 유치에 성공했다.

충남도는 6월 19일 도청 상황실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 논산시와 '국방 미래 첨단 연구시설(가칭 국방미래 기술연구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태흠 지사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난지 2개월 만에 공식화 한 것으로, 도가 추진 중인 국방국가산업단지와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참석,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도내 건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협약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설립과 관련한 각 기관 간 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맺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논산시 일원 39만 6000㎡에 2969억 원을 투입해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건립한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에서는 인공지능 무인 체계 운용 실험, 로봇 체계 시험, 켐-바이오(Chem-Bio) 시험, 군용 전자 특수 성능평가 연구 실험, 국방 차세대 에너지 연구 등 국방 미래 첨단기술을 연구·실험한다.

도는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로 도가 추진 중인 국방국가산업·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과 국방 인공지능·로

봇 등 첨단 기술 신시장 선점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민간 방산 관련 기업 유치와 함께 국방인공지능(AI)센터·한국국방연구원·국방전직교육원 등 국방 관련 기관 유치, 국방클러스터화를 통한 국방 수도 완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설립에 따른 생산 효과는 3847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267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1605명, 60여 개 첨단 앵커 기업이 유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충남도와 국방과학연구소(ADD), 논산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연구·시험 시설 구축 ▲부지 확보 및 조성 ▲예산 확보 노력 등을 상호 협력 한다.

/공공기관유치단 041-635-3385



“지역 불균형 해소 위해 GTX-C 천안 연장해야”

김태흠 지사, 추진위 만나 논의

충남도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C 노선 천안 연장사업을 강력 추진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6월 15일 도청 접견실에서 GTX-C 노선 천안 연장 추진위원회를 만나 건의사항을 듣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GTX-C 노선 천안 연장 추진 위원회는 천안 연장을 위한 지원과 조속 추진을 건의하며, 결의문을 전달 했다.

GTX-C 노선 천안 연장 추진위원회는 천안지역 주민 98명으로 구성된 민

간단체로 5월 31일 출범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천안시는 서울의 면적보다 넓고 11개 대학이 위치한 교육도시로서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하루 평균 유동인구는 약 7만 명에 달하는 중부권 최대 수부도시"라며 "GTX-C 노선이 연장된다면 낙후된 천안역 인근지역에 새로운 부흥과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지역 격차와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다"고 했다.

앞으로 국회, 국토부 등을 찾아 GTX-C 노선 연장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GTX-C 노선 천안 연장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GTX-C는 천안과 서울 도심을 1시간 내 연결하는 교통 혁신으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천안시와 협력하여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추진위의 활동을 응원하며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사업은 경기 덕정~수원을 잇는 노선을 충남 천안·아산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와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이다.

/도로철도항공과 041-635-2835

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 추진

국회의원 35명 특별법 국회 발의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5개 시도의 염원이 담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6월 19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장동혁(보령·서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9개 시도 총 35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동참한 제정안으로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 조성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및 폐지지역 유치 ▲대체산업 육성 ▲규제자유특구 특례 ▲지역 주민 우선 고용 및 지역기업 우대 ▲교부세 지원 및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을 담았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총 58기 중 절반인 29기는 보령, 당진 등 충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에 2기가 위치해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원이지

만, 기후위기 등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폐지하는 추세다.

정부는 앞서 2019년 11월 1일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은 이날 도의회 정례회 보고에서 "연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공조 및 여론조성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경제과 041-635-2262

국비 10조 시대 개막 총력

정부예산 부처 반영 보고회
 대규모 SOC, 신규사업 반영

충남도가 국비 확보 상황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내년 10조 원 돌파 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도는 6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정부예산 확보 부처 반영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각 부처의 내년 예산요구안에 9조 7954억 원이 반영, 올해 정부예산 최종액과 비교하면 7300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규모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목표로 잡은 10조 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안은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많은 액수가 삭감될 가능성 이 크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라며 "반영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또 "기재부 예산 편성 작업이 본격 진행 중인 만큼, 국회에만 기대지 말고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해 최종 확보한 9조 589억원보다 9411억원 많은 10조 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방향은 ▲4대 투자 중점 사업 등 정부 투자 방향 연계 ▲국비 반영 정책 사업 적기 추진 ▲부처안 미 반영 사업 관리 등으로 잡았다.

도는 앞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신규 사업 추가 발굴·건의, 부처안 미 반영 사업 재요구, 대통령 실·국회·기재부 대상 건의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는 정부예산 부처 반영 종합 보고, 실국원별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예산담당관 041-635-3174

도내 유망기업 우대 보증지원

도-서울보증보험 업무협약

충남도가 물가상승 및 금리인상 등 대내·외적 경기위축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유망기업 지원에 나선다.

도는 6월 15일 도청 상황실에서 서울보증보험과 보증 보험료 감면 등 기업 관리비용 경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도에서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과 모범장수기업(이하 유망기업)은 서울보증보험의 우대 보증지원을 받는다.

세부 지원내용은 기업 신용등급별 보증 한도를 현행보다 최대 30억원까지 확대하고, 이행보증 보험상품 보험료의 1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외부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기업신용관리 컨설팅 서비스와 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달 기준 인증기한이 유효한 도내 유망기업은 중소기업 81개사와 모범장수기업 9개사이다.

도는 보증보험료 부담을 더는 한편 보증한도도 현행보다 연간 약 1580억 원으로 증가해 성장성이 둔화된 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증보험 우대 지원은 협약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지원혜택의 자세한 사항은 도 기업지원과(☎041-635-3445) 또는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1670-7000)에 문의하면 된다.

/기업지원과 041-635-3445

충남형 엠(M)버스 남서울대 운행 시작

향후 노선, 운행 시간 보완

충남도는 아산시, 천안시와 협의를 거쳐 충남형 엠(M)버스 노선에 남서울대 정류소를 추가하고 운행에 들어갔다.

이번 노선 확대는 수요 분석 및 천안지역 대학과의 소통을 통해 이뤄졌다.

도는 충남형 엠(M)버스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이용률을 분석하고 추가 노선을 신설하는 등 지속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도는 천안지역 5개 대학과 협의하고 이용 현황 정보(데이터) 분석, 민원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버스 노선 및 운행 시간을 꾸준히 보완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천안에서 서울 강남역·남부터미널을 연결하는 시외버스

노선, 대전권 및 대도시권 광역급행 노선 등도 신설해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편리하고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남서울대 정류소 추가로 충남형 엠(M)버스 이용객이 40여 명에서 100여 명으로 증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이용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실제 이용객의 수요에 맞춰 교통 서비스를 지속 개선·보완하고 도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서울대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재학생과 학교 임직원의 교통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충남형 엠(M)버스 노선 확대를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교통정책과 041-635-4576

충남도정

신문 무료 구독신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041-635-2035

‘2023 대백제전’ 개최 준비 만전...백제문화 알린다

9월 23~10월 9일 공주·부여서
외국인 등 관람객 150만명 목표
수상미디어쇼, 퍼레이드, 전시 등

전국 최대 역사문화축제 백제문화제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대백제전은 ‘2010년 세계대백제전’ 이후 13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앤데믹 시대 첫 충남 메가이벤트인 만큼 관심이 쏠린다.

‘2023 대백제전’은 ‘대백제, 세계와 통(通)하다’를 주제로 9월 23일부터 10월 9일 진행되며, 개막식과 폐막식은 각각 공주 금강신관광원과 부여 구드래둔치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대백제전은 무령왕 서거 1500주기 및 성왕 즉위 1500주년, 금동대향로 발굴 3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만큼 과거 백제와 교류를 맺었던 해외국가 9개국 10개 공연단을 초청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웅진판타지아 모습. /충남도



백제의 전투 모습.

외국인 2만명을 포함하여 150만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70여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백제문화제재단의 대표 프로그램인 수상미디어쇼, 멀티미디어 아트관은 음향·레이저·홀로그램·특수효과 등

첨단기술을 융복합해 엠지(MZ) 세대 등 다양한 세대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공주시는 웅진판타지아, 웅진성 퍼레이드 등을, 부여군은 백제의 전투, ‘제불전2023 다시보는 사비백제의 禮’ 등 대표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뿐만 아니라 도내 13개 시군 문화예술공연단의 공연, 친환경 놀이터, 천환경 전시 및 체험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편 도와 공주시·부여군, 백제문화

제재단은 6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3 대백제전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준비상황 및 행사 콘텐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광진흥과 041-635-3882

/백제문화제재단 041-635-6985

도내 수산물 방사능 ‘불검출’

넙치, 꽃게 등 24품종 검사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실시 중인 생산·거래 전 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 결과 5월 말 기준 단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는 양식장 28곳, 위판장 18곳의 넙치, 꽃게, 김 등 24품종 107건을 대상으로 요오드(131I), 세슘(134+137Cs)

을 정밀분석했다.

연구소는 2014년 검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853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조사주기 (월 1회 → 2회) 및 건수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 수산물안전센터는 3억 원을 투입해 방사능 검사장비 1대를 확충, 도민의 건강과 직결

된 수산물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병도 도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는 연구소 누리집(<http://www.cn.go.kr/fisheryMain.do>)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77

공공기관 탈 플라스틱 전환

1회용품 없는 깨끗한 청사

충남도가 도청사 내에서 1회용품을 퇴출시킨다.

도는 6월 16일 도청 지하 1층 로비에서 ‘1회용품 없는 깨끗한 청사 만들기’ 캠페인을 열고, ‘공공기관 탈 플라스틱 전환 및 범도민 확산 계획’ 본

격 추진을 안팎에 밝혔다.

공공기관 탈 플라스틱 계획은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현 분위기를 확산해 나아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 계획은 1단계로 도 본청과 도의회,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부터 시작한다. 도는 우선 도청사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1회용 컵 반입·휴대를 금지한다. 사무실 및 회의실에서도 1회

용품 사용을 금하고, 페트병 먹는 물·음료 사용도 금지하며, 회의·행사 시 다회용품 사용을 의무화한다.

청사 내 커피전문점 역시 다회용 컵 전용 매장으로 전환하고, 플라스틱 빨대나 젓는 막대 사용 등도 막는다.

매점에서는 종이컵, 1회용 접시 등 1회용품을 팔 수 없도록 하고, 비닐봉투 사용도 금한다.

/환경안전관리과 041-635-4449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충청권이 이끈다

충청권 4개 시도민 설명회 개최

추진현황 ▲특자체 여건 및 전망 등을 다루게 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6월 26일 충청북도를 시작으로 6월 27일 대전시, 6월 28일 세종시, 7월 이후 충청남도 순으로 개최하며, 충청권 시도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설명회에서는 충청권 4개 시·도 추천을 받아 구성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단 위촉식도 진행된다.

이들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을 위한 민간부문 참여를 주도하고 지역사회에 관련 소식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총 163명으로 학계, 언론,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설명회와 관련된 사항은 각 시·도 누리집 등에 게시된 홍보 포스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균형발전정책과 041-635-2913



무령왕 서거·성왕 즉위 1500주년, 찬란한 백제 역사 속으로

17) 사비도성

자, 여러분 버스에 타세요. 우리는 538년 성왕이 사비천도를 한 길을 따라 가보도록 할게요. 당시에 성왕이 공주에서 부여로 행차할 때 육로로 갔을지 강을 따라 갔는지 알 수 없어요. 학계에서는 그 많은 사람과 짐을 옮기려면 배를 타고 강을 따라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백성들은 육로로 걸어서 갔을 겁니다. 우리는 당시 백성이라 생각하고 사비도성으로 가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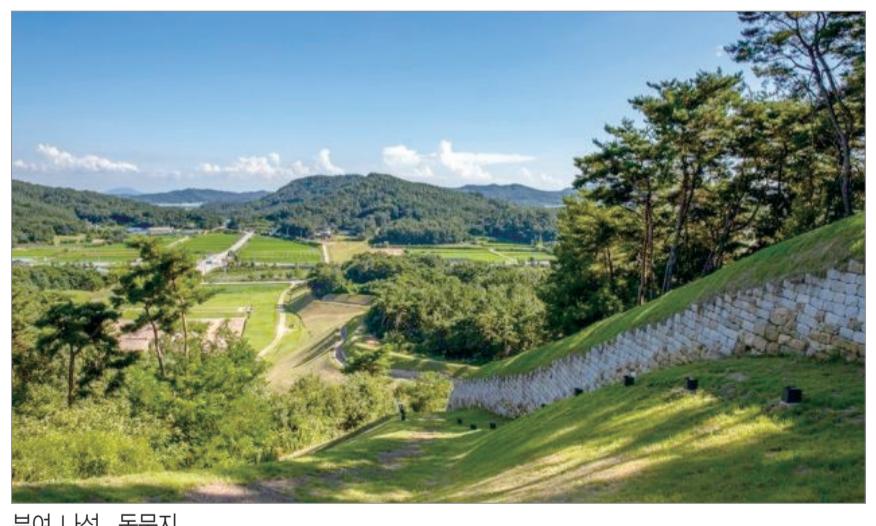
조금만 더 가면 부여에 도착할 것 같아요. 음, 오른쪽으로 부여왕릉원과 능산리 사지가 보이네요. 이제 버스에서 내리실까요. 오늘부터 사비도성을 설명해줄 새로운 가이드를 소개 할까합니다. 짜잔~ 제 남자친구 충청

동아시아 강대국 백제의 계획도시, 사비도성

가지를 가지런히 깔아 연약한 바닥이 가라앉는 것을 방지하는 부엽공법과 말뚝을 박아서 지반의 밀도를 높이는 말뚝 공법 등 첨단 토목 기술을 활용하여 저습지에 단단한 대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 대지 위에 왕궁과 관청, 사찰, 왕릉 구역 등의 위치를 사전에 배치하였고, 도성 내부는 크고 작은 도로로 나누어 다양한 공간이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설계하였어요. 그 모습은 발굴조사 된 도성 전체를 감싸는 외곽 성인 나성과 도로 유적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특히 능산리사지 인근에 위치한 동문은 사비도성을 남북으로 이등분한 위치에 있는데, 동문 밖에는 능산리 사지와 왕릉인 부여왕릉원이 위치해 있어요. 도로 유적은 왕궁이 위치한 관북리유적을 거쳐 정림사지, 군수리 사지를 연결하여 사비도성을 남북으



부여 나성 동문지.

로 빼게 하였답니다. 지금까지 발굴 조사로 알 수 있듯이 사비도성은 내부 공간을 동서와 남북으로 구획한 계획도시였죠.

이 계획도시는 한반도 최초로 만들 어졌다는 거 알고 계세요? 고구려 장 안성보다 60년 이상 앞서 있다고 합

니다. 정말 대단하죠. 눈을 감아보세요. 과거 찬란했던 백제 사비도성이 떠오르나요? 장기간에 걸쳐 계획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한 도시를 상상해보세요.

/이경복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내포문화진흥센터장



▲논산제2훈련소 훈련모습.

◀1951년 11월 1일 논산 육군훈련소 창설 당시 사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강군 육성의 요람... “훈련은 실전처럼”

격동의 충남 100년

논산 육군 훈련소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6·25 계기 군 육성 필요
육군훈련소 창설 자리 논산으로 결정
훈련소 명칭 ‘연무대’ 신병 훈련·공급

채명신 소장 당시 강군 육성에 헌신
북한군 출신 정봉우 비리척결 주역

이승만 대통령은 아무 준비없이 있다가 6·25 북한의 기습 남침을 당하고서 ‘강군육성(強軍育成)’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마땅한 육군 훈련소 자리를 물색하기 위해 직접 여러 후보지를 둘러보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논산 황산벌의 백제 출신 계백 장군 훈이 깃들여 있는 곳임에 깊은 인상을 받고 주저 없이 이곳을 육군 제2훈련소로 낙점했다. 물론 제1훈련소가 제주도에 있었으나 훈련장소가 협소하고 다른 병과와의 훈련 연계가 잘되지 않아, 보다 광활하고 현대식 전투시설을 갖춘 훈련소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던 것.(제1훈련소는 1955년 폐지됨)

논산 제2훈련소 자리를 결정한 이 대통령은 아

예 이곳 논산군 구자곡면 지명을 ‘연무읍’으로 바꾸고 훈련소 명칭도 ‘연무대(鍊武臺)’로 명명했다. 그리고 직접 이 대통령이 붓을 들어 ‘연무대’ 휘호를 내렸는데 지금도 훈련소 정문에 자리 잡고 있다. 그 만큼 이 대통령은 연무대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 그래서 전쟁의 포화가 치열한 가운데서도 1951년 11월 1일 이곳에 제2육군훈련소가 창설되었는데 면적이 서울 상암 축구장 109개에 해당될 만큼 넓었다.

초대 훈련소장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전방에서 전투 중인 김종갑 제9사단장을 임명했다. 군사 조직과 전작통으로 유명했다. 그는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를 졸업 후 일본 예비사관학교를 다니다가 해방이 되자 귀국하여 군사영어학교를 거쳐 국군 장교로 입관된 인물. 그는 허허벌판 불모지에 훈련시설과 막사, 각종 사격장 등을 설치하느라 24시간 밤낮 없이 뛰어 다녔다. 그는 이런 공로로 중장으로 승진하였고 5·16후에는 고향 서천에서 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등 정치 인생을 걸었다. 그러나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고 1976년 74세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어렵게 발족한 훈련소는 규모가 크다 보니 군수물자와 국가 예산의 소요가 매우 컸고 자연히 비리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훈련소장을 역임한 모 장군은 부정 축재로 구속되었다가 4·19혁명 때 석방되었으나 5·16후 혁명재판에 다시 구속 회부 되기도 했다. 월남전 때 주월 사령관을 지낸 채명신 장군은 훈련소에서 두 번 근무한 기록이 있다. 한 번은 대령 시절, 그리고 육군 소장이 되어서 특히 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한 일화가 많다. 대령으로 있을 때 미국 정부가 훈련병을 위해 겨울 내복을 보내 왔었다. 그런데 일부 장교들이 이것을 시장에 내다 팔고 값싼 국산 내복으로 교체하여 지급한 사건을 적발했다.

채명신 대령은 비리에 관련된 장교들을 군법회의에 회부하는 한편 자신도 감독 소홀의 책임이 있으니 영창에 들어가겠다고 하여 훈련소 지휘관들이 진땀을 뺀 일도 있었다. 따라서 그가 소장이 되어 다시 부임하게 되니 훈련소는 긴장할 수 밖에 없었다. 그는 훈련병들의 식사, 잠자리 등 세심한 부분까지 철저히 챙기는 한편 ‘훈련은 실전처럼’을 구호로 내 걸 정도로 강군육성에 헌신했다. 채장군은 2013년 11월 25일 세상을 떠났는데 현충원 장군 묘역을 거부하고 월남전에서 전사한 사병 묘역에 묻혀 세상에 김동을 주었다. 그 만큼 그는 사병을 사랑한 참된 지휘관이요 군인이었다.

이곳 논산 훈련소를 거쳐간 소장중에는 북한군 출신도 있다. 정봉우(鄭鳳旭) 소장이 바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 그는 김일성과 함께 소련군에 있다가 해방이 되자 소련군을 따라 평양에 와서

◀논산제2훈련소 4주년
기념식 당시 모습.

논산 육군 훈련소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1월 1일 신병 기초군사훈련을 임무로 하는 육군본부 직할부대 '육군 제2훈련소'로 창설되었다. 이후 1986년에는 수용연대를 입소대대로 바꿨고, 1999년 육군 제2훈련소에서 육군훈련소로 정식 명칭이 바뀌었다. 2012년 3월 1일에는 입소대대가 입영심사대로 바뀌었다. 예전 제3군관구사령부 예하부대였으나 현재는 육군본부 아래 육군교육사령부 예하에 소속된 부대이다.

논산 육군 훈련소 장(長)의 계급은 소장이다. 한국전쟁 시기 같은 과거에는 전방부대에 신병 공급을 책임지는 핵심 시설이었다보니, 한신 당시 소장 등 군의 주요 인사들이 요직으로 두루 거쳐가는 필수코스였다. 일단 부대 규모 분류는 사단급이지만 실제 규모는 사단보다 훨씬 크고 소속 병력은 웬만한 사단보다 더 많기 때문에 훈련소장은 대개 사단장을 마친 선임소장이며, 아주 드물게 중장이 부임하는 경우도 있다. 육군훈련소 참모장도 사단 참모장보다 한 계급 높은 준장이다.

육군훈련소는 ‘무예를 닦는다’는 의미로 ‘연무대(鍊武臺)’라고도 불린다. 연무읍에 있어서 연무대가 아니고, 연무대가 있어서 연무읍이다. 쉽게 말해 훈련소가 읍 명칭의 유래가 된 것. 1963년 1월 1일에 전라북도 익산군 황화면이 충남 논산군에 편입되면서 구자곡면과 합하여 ‘연무읍’으로 승격되었다. 연무대는 이승만 대통령이 부대 창설 당시 지은 이름이다.

자료조사/이상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역사박물관 선임연구원

인민군 중좌(중령)이 되었다. 그리고 6·25 남침 때는 포병부대를 이끌고 낙동강 대부동 전투에까지 참전하게 된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부산까지 밀리게 되는 그야말로 최후의 방어선. 백선엽 사단장이 이끄는 국군 제1사단과 미 제23연대, 제27연대 등 1만 700명의 병력, 북한군 3개 사단 2만 7000명이 밤낮 없이 혈전을 벌이는 가운데 북한군 정봉우 중좌는 자신이 속한 사단장과 언쟁을 벌인 후 보좌관과 함께 8월 21일 미 27연대에 귀순하게 되었고 미군은 이들을 우리 국군 1사단에 인계했다.

귀순하면서 정봉우는 북한군의 포진지 배치 상황을 국군에 제보함으로써 우리 공군이 작전을 펼쳐 북한 포 공격을 무력화 시키는 공로를 세웠다. 따라서 정봉우는 즉시 우리 국군에 편입되어 함께 싸웠는데 6·25 때 귀순한 북한군으로서 그가 제일 높은 계급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장군으로 진급되어 7사단장을 역임하는가 하면 육군3사관학교 초대 교장이 되기도 했고 1970년에는 논산 훈련소 소장으로 부임했다. 청렴하기로 유명한 그는 훈련소내 비리척결에 큰 공적을 남기고 1973년 예편 후 정부 비상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

로 근무했다. 2018년 세상을 떠나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

이 밖에도 후에 국방부 장관에 오른 박병권 장군, 5·16후 내무장관을 지낸 한신(韓信)장군 등 국군 전사에 남을 별들이 논산 훈련소를 거쳐 갔고 현재 훈련소장까지 55명이 되며 올해로 72년 역사 속에 900만 명의 국군을 탄생시켰다.

논산 훈련소는 논산지역 특히 연무읍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래서 한 때는 논산을 ‘돈산’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하지만 면회제도가 금지된 시절에는 이 지역 상권이 크게 위축된 아픈 경험도 있다.

육군 훈련소와 3군사령부가 있는 이곳 육군사관학교까지 유치하는 것이 충남 지역민의 꿈이다. 그리하여 계백장군의 훈이 깃든 황산벌을 국방의 요람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변평섭
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김종각
/대한민국헌정회정봉우
/육군3사관학교

하늘을 향한 대화민족의 힘



수어영상 QR코드

탄소중립 생활 실천

탄소중립

초심퀴즈

1 개인용 자동차 대신 '드자그트'을 이용하기

드자그트

★효과★
 주 1회만 이용하여도
 연간 285.4kg의 이산화탄소
 감축 및 31.4그루의 나무 심는
 효과가 있어요



2 '그즈피' 대기전력 차단하기

그즈피

★효과★
 1가구당 연간 81.5kg의
 이산화탄소 감축 및
 9그루의 나무 심는 효과가 있어요



3 'ㅌㄹㅂㅈ' 시청 시간 줄이기

ㅌㄹㅂㅈ

★효과★
 매일 1시간만 줄여도
 연간 16.5kg의 이산화탄소 감축 및
 1.8그루의 나무 심는 효과가 있어요



4 'ㅈㅎㅇ'을 위한 분리배출 실천하기

ㅈㅎㅇ



★효과★
 1인당 연간 88.0kg의
 이산화탄소 감축 및
 9.7그루의 나무 심는 효과가 있어요



퀴즈로 알아보는
 탄소중립 실천방안
 우리 모두 함께해요



5 'ㅈㅂㄱㄴ' 이용하고 비닐 사용 줄이기

ㅈㅂㄱㄴ

★효과★
 1인당 연간 11.9kg의
 이산화탄소 감축 및
 1.3그루의 나무 심는 효과가 있어요



6 난방 'o°' 2°C 낮추고 냉방 'o°' 2°C 높이기

o°

★효과★
 1가구당 연간 166.8kg의
 이산화탄소 감축 및
 18.3그루의 나무 심는 효과가 있어요



정답 : ①대중교통, ②가전제품, ③텔레비전, ④온도, ⑤장바구니, ⑥재활용



계룡시 '팥'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한다

음식 개발·교육·축제 등 기획해 방문객 유치·경제 활성화 추진

계룡시가 6월 14일 음식개발, 축제기획 등 '팥'을 활용한 관광상품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관내 두마(豆腐)면의 지역명칭 유래는 팥이나 콩을 가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오래전부터 팥이 지역특산물로 생산돼 왔으며, 조선 태조 이성계가 현재의 신도안면 지역으로 천도 추진 시 인부들에게 팥죽을

끓여 먹였다는 고사도 있는 등 예로부터 팥이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알려졌다.

시는 두마면 지명 유래와 고사를 바탕으로 시를 대표하는 특산물로서의 '팥'에 대한 스토리를 입히고 기존 팥거리축제와 연계해 지역을 상징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팥빙수·팥요리 축제 등을 기획해 타 지역 방문객 유치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팥파이, 팥스낵, 팥젤리샐러

드 등 팥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 개발은 물론 시민 대상으로 팥 음식 교육, 군문화축제 시 팥음식 체험장 운영 등 팥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두마면이라는 지명 유래에서 알 수 있듯이 계룡시는 오래 전부터 팥이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생산·재배돼왔다"며 "팥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보다 많은 관광객이 계룡시를 찾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룡시 제공

예산군 무장애 관광지 조성

예당관광지·대홍슬로시티 등 촉지형 안내판·점자표식 갖춰

예산군은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이동약자들도 편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예당관광지, 대홍슬로시티, 봉수산휴양림에 무장애 관광 시설을 설치했다고 6월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열린관광 환경 조성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15억 원으로 추진됐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지 내 완만한 데크길 조성, 화장실 리모델링, 장애인 주차장 조성, 봉수산휴양림 내 숙박동 2동 정비 등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장벽을 줄이고 화장실 점자표식을 갖추는 등 무장애 관광지를 조성했다.

무장애 관광 동선 조성과 함께 시·청각장애인에게 관광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각 지점 입구에 촉지형 안내판을 설치하고 점자 리플릿 및 관광지 홍보 수어 동영상도 제작했다.

군은 이와 함께 관내 관광종사자 및 문화관광해설사, 관광 관련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열린 관광 사업, 관광객 대응 및 서비스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요 관광지를 열린관광지로 개선한 만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모든 관광객이 불편없이 관광하는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열린관광 환경 조성사업 준공을 계기로 '명품 관광도시 예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군 제공

한국인은 참 좋다

지구촌 함께해요 다문화가족 충남정착기

나와 한국과의 첫 인연은 1998년쯤 이었다. 나는 대학에서 영어학을 공부하면서 영어교사과정을 전공했는 데 잠시 대학을 휴학하고 호주 어느 초등학교에서 일본어 교사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호주에서의 1년 계약기간을 다 마치고 일본에 다시 돌아갈 때 나는 대한항공을 이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번 비행기를 갈아타야 해서 서울 김포 공항에 내리고 며칠동안 서울에 머물기로 했다. 당시 나는 한국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한국어도 전혀 못 했지만 여행을 좋아해서 처음 가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을 가득 안고 종로3가에 숙소를 잡고서 3일 동안 지내며 이곳 저곳 여행을 다녔다. 그런데 그 체류기간에 나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져버렸다. 나에게 다가와 친절을 베풀어 주신 남자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호텔 같은 곳에 데려가려고 했던 것이다. 내 인생에 다시는 한국에 올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후 몇 년이 지나서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한국남자와 결혼하게 되어 2006년에 충남 금산에서 한국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마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그렇지 만 일본 사람들은 서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서로 예의를 지키는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다른 사람 이 나의 생활에 지나치게 가까이 다



가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가족 이라도 마찬가지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에게 아래라! 저래라! 강요하지

수업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 자신도 다른 문화들이 모여서 하나되어 살아가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일본의 예의를 지키는 문화와 공공 질서를 잘 지켜야 하는 문화, 상대를 먼저 배려해주는 문화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면서도 학교에서는 '우리'라는 개념 속에서 서로 돋고 의지하고 함께 어울리며 한 형제처럼 지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친구들과 형제처럼 지내되 항상 예의를 갖추라는 것이다.

이제 한국에서 16년 정도 살다 보니 요즘 또 다른 고민이 생기고 있다. 한국 분들이 나를 외국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한국 사람 대하듯 대하는 것이다. 아직 모르는 것도 있고 생각을 해야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한국인처럼 대하면 다들 웃는데 혼자 못 웃을 때도 있고 당황스러울 때도 가끔 있다. 서양 사람들은 같으면 아무리 오래 한국에 살아도 다름은 인정하고 대체로 텐데 말이다.

그러나 나는 한국 생활이 기쁘고 행복하다. 늘 나를 도와주려는 분들이 주변이 많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생겼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아름다운 정의 세계를 느낄 때마다 "한국인은 참 좋다"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한류 열풍시대에 한국어를 제2의 모국어처럼 쓸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다.

/아사오까 리에(금산군가족센터)

2023년산 '홍성마늘' 본격 출하

당도 높고 아삭한 식감 자랑

홍성 대표 지역특화작물 홍성마늘이 6월 15일 서부농협 공동 선별장에서 2023년산 홍성마늘 출하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출하 시작을 알렸다.

홍성마늘은 수확시기가 다가오면 뿌리가 끊겨 손으로 수확할 수 있어 농가 인력 부담을 덜어주고, 알이 굽고 단단하여 저장성이 우수하다. 특히 당도가 높고 아삭아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 농가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인기가 높다.

올해는 3월~4월 적절한 강우로 고온과 가뭄으로 작황이 크게 좋지 않았던 지난해 대비 좋으나, 출하를 앞두고 찾아온 기온변화와 5월 집중호우로 평년보다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2023년산 마늘재배 면적이 늘어 올해 마늘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성마늘은 올해도 전년과 같이 홍성마늘연구회에서 수매를 진행하며 올해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홍성군농업기술센터는 홍성마늘의

판로확장을 위해 국내 백화점, 대형 마트, 해외 시범 수출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성마늘을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 및 음식을 개발하고 '홍성마늘을 활용한 요리 레시피 40종'을 개발해 관내 외식업체에 배포하는 등 홍성마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승복 홍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홍성마늘은 우리 지역명이 들어가는 유일한 농산물이다. 홍성군 외식업체와 급식센터, 홍성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홍성에 오면 홍성마늘을 쉽게 살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홍성마늘의 브랜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홍성마늘은 고혈압, 고지혈증 등에 효과가 있는 클로로필 성분이 많이 함유돼 마늘 끝에 초록색을 띠는 특징이다. 2020년도 '대한민국 우수품종 대상(대통령)'을 수상한 국산 신품종 마늘이며 홍성마늘연구회는 '2020년 전국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홍성군 제공



홍복읍 상하리에서 홍성마늘 수확에 한창이다

당진시, '난지섬 공공형버스' 운행 개시

주민·관광객 교통편의 증진

충남 당진시는 도비도와 대난지도를 잇는 청룡해운관광 여객선 운행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원활한 여객선 운송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난지섬 공공형 버스'를 운행한다.

공공형 버스는 도비도를 출발한 여객선이 도착하는 소난지도 선착장에서 대난지도 선착장 사이를 운행하며 민가 밀집 지역과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를 경유한다.

버스는 여객선 운행 시간표에 맞추어 하루 최소 5회 운행되며 관광객

등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차 운행될 예정이다.

이용요금은 시내버스와 동일한 성인 기준 1600원이며, 만 75세 이상과 장애인 등 무상교통 대상자와 할인대상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버스 운행은 교통행정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며 "청룡해운관광이 대난지도 여객선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오는 7월 8일 해수욕장 개장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서둘러 도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당진시 제공



소난지도(왼쪽)와 대난지도 노선에 공공형버스를 투입한다

2023.6 문화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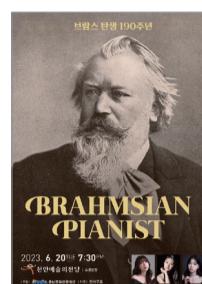
일	월	화	수	목	금	토
---	---	---	---	---	---	---

20



브람시안 피아니스트

기간: 2023-06-20
시간: 19:30
장소: 천안예술의 전당
연령: 초등학생 이상
관람료: 무료
문의: 1566-0155



22



미스&미스터 트롯

기간: 6월 22일 오후 7시
장소: 홍주문화회관 대공연장
관람료: R석-2만원, S석-1만원
문의: 041-634-0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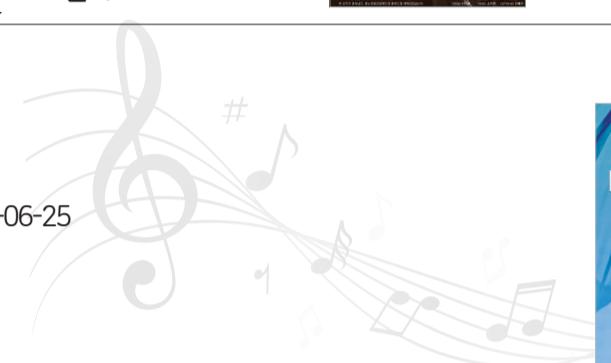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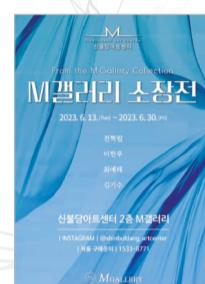
유리나 개인전

기간: 2023-05-31 ~ 2023-06-25
시간: 11:30
장소: 갤러리현
관람료: 무료
문의: 0415764988



양성평등 문학콘서트

기간: 2023. 6. 25.(월)
장소: 천안문학관 3층
시간: 15:00
문의: 070-8180-1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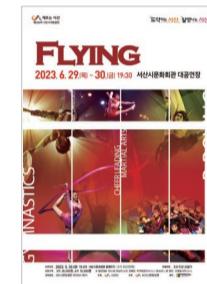


M갤러리 소장전

기간: 2023-06-13 ~ 2023-06-29
시간: 10:00
장소: 신불당아트센터 2층 M갤러리
관람료: 무료
문의: 1533-8711

<기획공연> 넌버벌뮤지컬『인피니티플라잉』

기간: 2023-06-29 ~ 2023-06-30
시간: 19:30
장소: 서산시문화회관 대공연장
연령: 3세 이상
관람료: 비용S석_20,000원 / A석_10,000원
문의: 041-661-8023



신진청년예술인 갤러리 - 장유정 도예가



◀ 작품설명

자연과 식물이 인간에게 주는 무한 긍정의 힘을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변함없는 형태로 공존하며 예술과의 어울림을 이끌어줍니다.

◀ ceramic plant /ceramic, acrylic, gold stain



화이트블럭 천안창작촌 10기 입주작가 쇼케이스전《OLD & NEW》

기간: 2023.05.18 ~ 2023.07.16
시간: 10:00
장소: 화이트블럭 천안창작촌
연령: 전연령대
관람료: 무료
문의: 041-414-4464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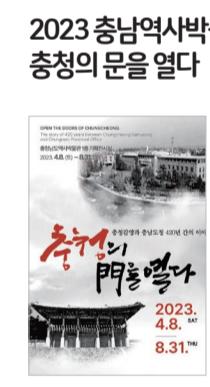
천안시 승격 60주년 특별기획전 <관계도시 : 유동하는 미래>

기간: 2023-06-16 ~ 2023-08-27
시간: 10:00
장소: 천안시립미술관 전시실 전관
연령: 전연령
관람료: 무료



2023 성인 예술교육프로그램 -하고 싶음, 하나 <붓 잡고 싶음>

기간: 2023-06-10 ~ 2023-07-08
시간: 10:00
장소: 화이트블럭 천안창작촌
연령: 성인
관람료: 무료
문의: 041-414-4464



2023 충남역사박물관 정기특별전 충청의 문을 열다

기간: 2023.4.8 ~ 2023.8.31
장소: 충청남도역사박물관
야외무대 및 1층 기획전시실
시간: 14:00
문의: 041-856-8662



사서들의 서재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이나 다 도요시/현대지성/2022

이 책의 제목을 보자마자 '어, 나다!'라고 생각했다. 나도 영상이 길다 싶으면 1.25배속을 기본으로 해놓기 때문이다. 책의 초반에 나오는 다양한 상황들은 나와 비슷한 점이 많아 꽁징히 공감되었다.

저자 이나다 도요시는 빨리 감기, 건너뛰기 등으로 영상을 보는 등의 행위는 영상 콘텐츠를 감상하는 것이 아닌 소비하는 행위라고 설명한다. 감상은 행위 자체가 목적이고 소비는 실리적인 목적을 위한 행위라는 것이다. 즉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 딱 필요한 정도의 내용만 과학하기 위함인 것이다.

빨리 감기뿐만 아니라 영화 리뷰, 드라마 요약과 같이 유튜브에 많이 만들어지는 요약 영상 콘텐츠들을 2시간 분량의 영화보다 더 많이 보는 현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이렇게 영상을 감상이 아닌 소비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모바일과 인터넷의 발달로 넘쳐나는 정보, 영상 콘텐츠 속에서 시간 가성비를 쟁기기 위함이다. '이것만 읽어두면 되는',

'바쁜 직장인을 위한'이라는 제목의 영상들도 많은 정보 속 효율을 추구하기 위해 핵심적인 내용만 알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한 것이다.

사람들은 수 많은 콘텐츠 속 재미 있고 내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빠른 시간안에 선별하기 위해 리뷰나 요약 영상을 보거나, 또는 빨리 감기로 보며 콘텐츠를 끝까지 볼지 말지 결정 한다. 또, 확실한 것을 좋아하며 실패하기 싫어하는 젊은 세대의 경향도 빨리 감기, 건너뛰기라는 습관을 만들 어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런 행동 양상에 대한 감독, 작가 등의 입장이 궁금하다면, Z세대의 사회적 특징들과 그것이 미디어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충남도서관 정보서비스과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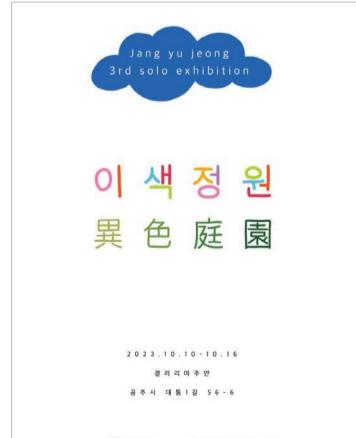
▼전시소개

이번 전시는 장유정 작가의 3번째 열리는 개인전으로서 다양한 소재의 결합을 더한 세라믹 전시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꽃이 가득 찬 평범한 정원의 모습이 아닌, 여러 소재(세라믹, 우드, 캔버스 등)의 혼합을 통해 재미를 더한 이색 정원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작품에 알록달록한 색감을 사용하여 밝은 분위기 속에 피어난 하나뿐인 정원입니다.

또한 전시를 감상하는 관람객도 함께 정원 꾸미기에 동참하여 참여형 전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색정원 異色庭園

2023.10.10-10.16
경기 지역 주민
충주시 대통 1길 56-6



장 유 정

●약력
2021 문화예술교육사 2급
2019 목원대학교 도자디자인학과 졸업
●개인전
2023 2회개인전 화색 II (華色)
2020 1회개인전 화색 I (華色)

정보화 물결에 떠밀리는 우리의 고유 언어

내포칼럼



편세환
서산문화원장

지금 우리는 정보화 시대라는 큰 물결 속에서 허우적 거리며 살아가고 있다. 정보화란 학자마다 주장이 좀 다르지만 정보를 만들어 내는 사람과 정보 매체를 통하여 수신하는 사람과의 교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사회가 정보화 사회라 할 수 있다.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가 전파를 타고 공중을 날아다니고 있다. 이것을 제때 붙잡아 자기 것으로 활용하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유익한 정보가 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보가 허공을 날아다녀도 붙잡아 활용하지 못하면 무의미한 것이다. 특히 정보의 활용은 세대 간 활용도의 차이가 매우 크다.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기기나 매체를 자유로이 다룰 수 있는 젊은 세대와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다니면서도 활용할 줄 모르는 나이 든 세대 간의 격차는 대단히 크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공부는 않고 컴퓨터만 보고 있다고 호통치면 손자는 속으로 할아버지는 컴퓨터도 할 줄 모르면서 큰소리만 친다고 혼잣말 한다. 한 마디로 할아버지 세대가 손자 세대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1960~1970년대 우리 사회는 문맹률이 높아 편지도 읽을 줄 모르던 노인들이 많았다. 당시 시골 촌노들은 정보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대에 살았기에 현재의 젊은 세대들에게 어쩔 수 없이 무시당하며 사는 세대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 속에 간직한 소중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 고유의 전통과 언어다. 그들이 대를 이어 전수하고 간직한 언어는 참으로 귀중하다. 특히 지방 사투리는 우리 고유의 언어며 지리적으로 색다르게 간직한 이름답고 보배로운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경일이 달라 있다. 3.1절(三一節), 개천절(開天節), 제헌절(制憲節), 광복절(光復節), 한글

재 60여 개 국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세계 250여 개소에 세종학당이 설치되어 우리의 글과 말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위대한 우리글과 말이 정보화 시대 속에서 외래어 턱류의 물결에 오염되고 있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금 당장 도심의 거리를 나가보면 아파트 이름을 비롯한 모든 간판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제 다시 외래어를 훈용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당국에서는 우리의 글과 말을 지키려는 방안을 연구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날 우리 글과 말이 빛을 잃어가지 않을까 염려된다.

필리핀의 언어는 본래 동남아 언어군에 속하는 필리핀 고유어가 있다. 그러나 1521년 마젤란에 의한 스페인의 침략과 1898년 미국의 지배하에 놓이면서 언어 사용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 그들이 표준어처럼 사용하는 타갈로그어는 구사할 줄 몰라도 영어로는 소통이 어느 정도 자유롭다. 우리도 일제강점기 언어 말살 정책의 뼈아픈 역사를 안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어의 잔재가 우리 말 속에 무의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말은 우리가 고집스럽게 지키지 않으면 외세 물결에 휩쓸리게 된다. 글과 언어는 그 나라의 역사적 유산으로 민족의 자존심이며 최대 가치의 고유문화다.

최근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 곳에서 영상미디어 교육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이 교육을 통하여 정보화 시대에 맞는 공용어와 각종 기기 사용법을 교육함으로써 세대 간의 소통도 어느 정도 원활해질 것으로 본다. 또한 노인 세대들도 이러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대 간 격차를 줄이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젊은 세대와 어울려 자유로이 소통하며 떳떳이 살아야 할 것이다.

“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 정보화 격차 커
정보화 흥수 속에 우리글과 말 가치 흔들려
노인세대 적극적으로 공용어·기기교육 참여해야
”

날 등이다. 그중 4절(節)은 국가적 민족정신에 기반을 둔 날이지만 특별히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한 것은 그만큼 한글이 위대하기 때문이다. 우리 한글은 세계 30여 개 문자 중에 가장 훌륭한 문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 위대한 한글로부터 발현되고 구사되는 우리 말은 세계 3천여 개의 언어 중에 가장 표현 능력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언어로 인정받고 있다. 고로 우리 말은 2007년 국제공개어로 채택되었고, 현

없는 외래어로 표기되어 마치 외국의 코리아타운 거리에 서 있는 느낌을 준다. 국제적으로 공용되는 고유어는 어쩔 수 없이 외래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보의 큰 그릇인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 언론매체는 물론 공공기관의 공문서에까지 굳이 외래어를 표기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한때 정부는 공문서에 한글을 전용하도록 했던 시기가

충남도, 이젠 2보 전진할 때

출입기자 칼럼



조훈희
충도일보 기자

도는 국가 건축재정 속 2023년 정부 예산 9조 589억 원을 확보했고, 투자 유치 세일즈를 통해 64개사 10조 3314억 원이라는 투자실적을 달성했다. 국비 확보를 위한 과감한 목표 설정, 국내외를 막론하고 직접 뛰는 세일즈 등이 빛을 발했다.

천안과 홍성 등 2곳에 국가산단 후보지가 선정된 점도 큰 성과다. 10개 시도 중 최대 규모로 천안은 약 127만 평에 1조 6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홍성은 약 72만 평에 4963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와 친환경 미래 신산업 혁신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의료 체계에 대한 기틀도 마련했다. 공모로 전환됐던 국립경찰병원은 아산으로 유치됐고,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임기 내 개원을 목표로 3년 이상 단축했다. 또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에 대한 행정절차를 민선 8기 5개월 만에 완료하면서, 6년 만에 정상궤도로 안착시켰다.

김태흠 지사는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1년 간 성과와 아쉬움이 많았는데, 남은 3년 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남은 3년의 방향성은 단연 '성과'다. 어떻게 충남을 그릴지 밑그림을 그렸다면, 이를 실사화 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김 지사의 정치력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낸 충남 공약 중 현재 지지부진한 게 많아서

다. 육사 이전은 물론, 서산공항, 공공기관 이전 등 해소해야 할 현안을 시작으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찰 병원 분원이 공모로 전환된 만큼, 국립치의학연구소 천안 유치도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 지방선거는 충남의 발전과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라는 도민의 기대가 섞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의 시너지가 필요한 때다.

김 지사는 3선 중진 국회의원의 면모도 도정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정치력 발휘를 통해 해외 일정으로 외교력을 발휘하고, 본격적인 현안 해소를 위한 행보에 나서야 한다. 김 지사는 "충남도지사로서 현안에 대해 필요하다면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만남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자신했다.

김태흠 지사의 2023년 키워드는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다.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어 나가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건넌다'는 뜻이다. 자율과 책임의 혁신 도정으로 역동적인 '힘쎈충남'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민선 8기 1년이 마무리 된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성과의 시간이다. 준비 기간이라는 이름도 사실상 끝났다. 한 박자 쉰 지금은 2보 전진을 할 때다. 김태흠 지사를 비롯한 충남도 관계자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과제여도, 길을 만들고 다리를 놓아서라도 해결하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후퇴라는 표현은 이질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민선 8기 충남도정의 1년은 2보 전진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쳤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도정 철학과 맞물려 그 준비 기간은 탄탄해졌고,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한 방향성 설정에도 행정력이 집중됐다. 한 마디로 민선 8기 1년은 성과를 위해 정책을 세팅하는 시기였다.

그렇다고 준비만 했던 것은 아니다. 준비 기간 가운데에서도 굵직한 성과들을 냈기 때문이다. 먼저, 충남

인도야, 인도야 나마스테

소중애 문학관의 책들(33)



소중애 동화작가

쉽게 낭떠러지를 이루고 서 있는데 깊이를 알 수 없도록 깊었다. 우기가 되면 바위 위로 물이 흘러 떨어져 폭포를 이루는 곳이며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 때문에 '작은 그랜드캐년'으로 불리기도 한다.

카주라호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르네 폭포에 가다가 희안 것을 보았다. 한 소년이 길가에서 두 팔을 쭉 뻗고 엎드려 손에 든 분필로 표시를 하고 일어나 분필 표시에 발끝을 대고 다시 두 팔을 뻗고 엎드려 손에 든 분필로 표시를 하고 일어나 다시 그 동작을 반복했다. 거리를 측량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속 터지게 인터넷이 늦기는 해도 인도는 IT 강국이 아닌가? 의문을 가졌지만 마땅히 물어 볼 사람이 없어 지나쳐 르네 폭포로 향했다. 르네 폭포에서 돌아오는 길에 보니 아까 그 소년은 여전히 길을 측량하는 것처럼 몸으로 길을 재고 있었다.

고개를 갸웃하며 지나치는데 내 옆으로 스쿠터를 탄 인도 아저씨가 지나갔다. 스쿠터를 따라갈 기세로 열심히 폐달을 밟았다. 스쿠터는 산모퉁이로 모습을 감추었다. 쫓아가려는 기세로 산모퉁이를 도는 순간, 아차 거기서 스쿠터 아저씨가 등을 보이고 소변을 보고 있었다. 뒤에서 인기척을 느낀 아저씨가 놀라 잡고 있던 바지를 놓쳤다. 바지가 내려가면서 아저씨의 형광빛 연두 팬티가 들어났다.

아고 눈부셔라.
인도 아저씨들은 팬티도 색깔이 곱구나! 감탄했던 인도 여행이었다.

전국 시·도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정부지원 촉구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제안한 건의안 채택
조길연 의장 “세계 속 충청 발돋움할 기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6월 21일 대구에서 열린 2023년 제5차 임시회에서 충남도의회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제안한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을 비롯한 대전·세종·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해 11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개최지로 선정되었으며, 이번 대회는 충청권의 첫 글로벌 메가 이벤트로

전 세계에 충청권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 560만 충청인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2조 7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만여명 이상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충청권 시·도의회는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대회 마케팅 및 홍보방안, 시민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협력 및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부여2)은 “이번 대회는 충청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의 의미를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세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이 될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6월 21일 대구에서 열린 2023년 제5차 임시회에서 충청권 4개 시·도가 제안한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제345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인구감소 문제 해결 충남도가 앞장서야”



김명숙 충남도의원(청양)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제안과 충남도의 관련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지정 9개 시·군의 5개년 계획에 대해 질문하며 “각 시·군마다 처해있는 인구감소 상황과 타개책이 다를 것인데 충남도는 각 시·군의 상황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로서 맞춤형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김 의원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나서는 충남도의 정책과 방향성을 묻고, 자체적인 기준과 이전계획이 있는지 질의한 뒤 관련 정책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태흠 지사는 “청년층 유입을 위한 스마트팜 사업, 대기업이나 대학의 이전, 리브투게더 등 다양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적극적인 사업 발굴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드래프트제를 요청했다고 밝히며, 이와 별개로 기존 공공기관의 충남·대전 분리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KBS 지역방송국과 지방은행 설립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충남에는 주요 지상파 방송국이 전무하다”며 김태흠 지사에게 수신료 거부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김 지사에게 마을단위 협의체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자부심 경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내년부터 점차 자부심을 줄이는 형태로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도 수출감소 해소 위한 우호적 중국관계 중요”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은 수출 감소 타개를 위한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와 세입 감소 예상에 따른 재정 검토, 소상공인 지원 등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대중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김태흠 지사의 일본 순방 당시 정부의 일본 셔틀외교 지지 빌언은 한중관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지사는 정치가인 동시에 행정가다. 따라서 도민의 복리 증진에 중점을 두고 실리외교를 추진하는 충남도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매끄럽지 못한 한중관계 속에서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전략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 질문을 통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감소 예상에 따라 위기 극복을 위한 탄력적인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 세출 예산 점검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과 시급한 사업을 구분해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재정 형편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충남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정확한 진단과 빠른 처방, 시의적절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는 6월 말 중국 4개 지역을 방문해 수출 확대, 관광 진흥, 미래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정부 예산과 도의 하반기 재원 상황을 고려한 재정검토 등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도내 깡통전세사기 예방대책 마련 촉구



이철수 충남도의원(당진1)은 도내 높은 전세가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깡통전세사기’ 위험에 대한 예방책 마련과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가율 80% 가 넘으면 깡통전세사기 위험신호로 여긴다”며 “최근 1년 충남 전세가율이 아파트는 79.7%, 연립·다세대 주택은 81.5%이고, 9개 시·군이 깡통전세사기 위험지역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거래경험이 적은 2030세대’라는 점과 ‘2030세대들의 전 재산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정상적인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점’, ‘최근 4개월 동안 충남 내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김태흠 도지사의 공약인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도 당부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의 「2018 통행료 인하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통행료 1.1배 실현을 위한 별도의 예산확보가 필요 없는지’, ‘민간 자본 투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떠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이어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중요성이 높은 사업인 만큼 그 과정을 촘촘하게 점검해 충남의 활력을 가져오는 도로로 구축하고, 하루라도 빨리 완공을 앞당겨 도민들의 불편함을 덜어달라”고 주문했다.

도민중!
행동하는 의회
공감하는 소통의정, 변화하는 선진의정, 실천하는 책임의정
충청남도의회가 만들어 갑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로 내 고향 충남을 응원해 주세요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제34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목적에 맞지 않은 예비비 사용 지양해야”

기획경제위원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6월 16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은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 “공공개방자원으로 시설뿐만 아니라 물품도 포함시켜 도민이 공공성 있는 물품을 필요에 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은 “도민들의 공공개방자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적인 목적으로 추진되는 행사 등에서 이용료 색감이 필요하다”며 “공공자원 이용을 활성화할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결산 심사에서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은 “인력운용비 집행잔액이 12억원 발생했는데,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라며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측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은 “주요정책개발 실무사업부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4000만원 가까이 발생하였는데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한 것 같다”며 “예산 주계를 정확하게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은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기금이 실질적으로 쓰이는 비율을 확인해 활용도가 없는 기금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부채상환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윤 위원은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업부 추진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지난해 집행이 부진했는데 올해 예산은 전년에 비해 늘었다”며 “올해도 사업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도민 건강증진·안전확보에 힘써주길” 당부

복지환경위원회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6월 16일 제345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은 “여름철 우기가 다가오고 있고 흉수나 침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은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관련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설정·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은 “보건환경연구원 노후장비 비율이 높음을 우려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 노후장비교체 예산 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은 “환경안전관리과와 하천과의 경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미수납액이 발생했다”며 “사유별 미수납 현황 분석을 통해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은 하천과의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호우피해복구 사업’의 집행율과 사업비 이월금에 대해 사업 집행률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은 기후환경국 결산 심의와 관련하여 계속비 이월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은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영역학조사 연구용역」 예산이 명시이월된 것과 관련 “꼼꼼한 예산관리와 사업계획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정병인 위원(천안8)은 “일본을 포함해 외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꼼꼼히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도민 세금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건설소방위원회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 이하 건소위)는 6월 19일 제345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소방본부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건소위 위원들은 2022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시행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은 “예산집행에 있어 공직자의 청렴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더더욱 도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특히 더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은 “충청남도의 산업단지와 공장 밀집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인명피해에 대비한 인력과 장비 등 소방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적극적인 징수를 통해 조세만이 아닌 징수에서도 평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한 후 “최근 물놀이 인명사고와 공동주택 화재가 발생했는데, 여름철 물놀이 시 안전사고 예방과 노후 공동주택 소화기에 대한 실태 조사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은 “이월예산이 많다는 것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이월비율을 줄여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창용 위원(당진3)은 “소방본부는 대체로 다른 부서에 비해 예산집행이 잘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계약직, 기간제, 임기제를 포함한 소방본부 구성원 모두가 공통의 책임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심사된 예산안은 6월 27일에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된다.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개선해달라” 주문

행정문화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6월 16일 제345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국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문화체육관광국 결산 심사에서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은 “문화체육관광국의 2021년 예산집행률은 94.3%였으나, 2022년 예산집행률은 91.6%로 올해 집행률이 떨어졌고, 이월액과 불용액 수치도 2021년에 비해 올해가 더 나빠졌다.

박기영 위원(공주2)은 “올해 충남의 문화자체 행 사업이 작년보다 개최 지역수는 늘었으나 개최 시기와 프로그램의 중복으로 행사 만족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점이 아쉽다”며 “지역마다 차별성 있는 행사로 관광객을 유입하고 야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은 “충남스포츠센터가 당초에 올해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정률이 낮고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계획한 준공 예정 기한인 내년 5월까지 충남스포츠센터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은 “문화정책과에서 소외 계층 문화 향유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문화누리카드의 이용률이 83%로 저조하다”며 “이용률 제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현숙 위원은 “충남음악창작소에서 추진한 음반제작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된 지역의 뮤지션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사업 홍보에 적극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수산물 안전성 확보로 도민불안 불식시키길”

농수산해양위원회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는 19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언론이 뜨겁다. 소금 대란 등 도민들이 불안한 상황으로 결국 향후 수산물 이용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어민만 피해 받는다”고 꼬집으며 “철저한 안전성 확보로 도민 불안을 불식시키는 등 대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은 “해양수산국 결산 자료를 보면 인건비 잔액이 약 2억원 정도다. 인력 채용에 더욱 힘써서 사업 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남해보다 충남에 김 연구소가 국립으로 설립됨이 타당하다. 정부에 건의하는 등 추진에 특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은 “수산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라며 “안전성 검사를 위해 꼭 필요한 보조 근로자를 채용하는 건데 인건비를 상향해서라도 채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성재 위원(천안5)은 “귀어학교 교육 운영 잔액이 15%나 발생했는데 오프라인 교육도 좋지만, 청년들의 경우 ICT 기반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발굴해 교육 운영을 더욱 빈틈없이 해 달라”고 말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은 농업기술원 심사에서 “직파 재배에 대해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과 함께 손의 분석으로 고정비용과 이익에 대한 객관적 분석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 통한 교육 현장 지원 강조

교육위원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2022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이번 2022회계연도 도교육청 예산 현액은 5조 6361억이며, 지출액은 5조 4209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6.2%가 집행됐다.

신순옥 위원은 “학교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교육지원청만의 특색을 갖춘 사업을 고민하고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활발한 대외협력으로 학생을 위한 교육 경비를 충분히 확보해달라”고 말했다.

박미옥 위원은 “신설 학교 계속비로 편성된 대규모 예산이 이월되는 동안 꼭 필요한 곳에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은 “통학 차량 배치 시 실시한 수요조사 대비 탑승 인원을 충족 못 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며 “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원인 분석을 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은 “방학을 이용해 학교 시설을 공사할 때 학생 안전에 위협되는 상황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전의현 위원(서천1)은 “사업 진행 시 정확한 소요 예산 예측으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은 “예산편성 시 수립한 사업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쓰고,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더욱 발 빼르게 움직여달라”고 덧붙였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은 “코로나 장기화로 예산 적기 집행에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최선을 다해줬다”며 “올해는 학교 교육 정상화와 각종 사업의 신속 집행에 힘써달라”고 마무리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은 “과태료 체납에 대한

2023 Great Baekje Festival

대백제전

대백제, 세계와 통(通)하다

2023. 9. 23.(토) - 10. 9.(월)

개막식 공주 | 폐막식 부여

